

환자 돕는데 무더위가 문젠가요!

생명나눔실천본부, 운문사서 골수기증 캠페인



운문사 학인 스님들이 채혈을 하고 있는 모습.

“생명보시로 부처님 법 실천합니다.” 7월 24일 청도 운문사(주지 흥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의 무더위에도 학인 스님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가 운문사에서 펼친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과 장기기증회원등록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60명의 학인 스님들 참가

장기기증 등록 및 헌혈증 보시

생명을 나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학인 스님들은 ‘생명보시’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주저없이 팔을 걸었다. 학인 스님들이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을 위해 채혈한 3cc의 피는 건강한 골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기에 학인 스님들의 얼굴은 편안하기 그지없었다.

더운 날씨, 학인 스님들의 ‘생명나눔’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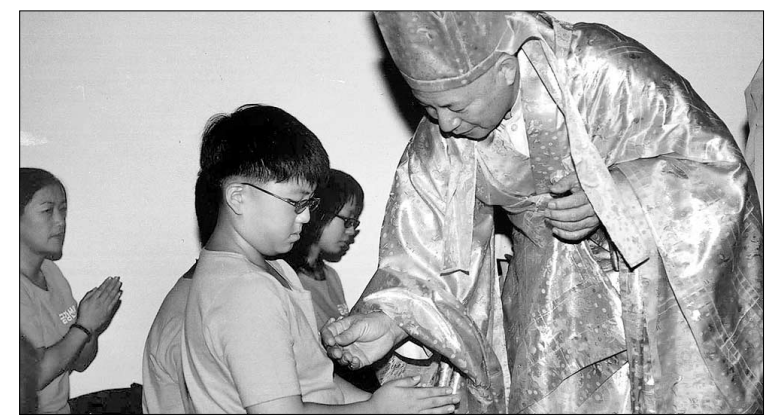
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생명나눔실천본부 캠페인에는 총 60명의 학인 스님이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에 참여했다.

또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날 장기기증 회원등록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각각 기증 29명을 포함, 총 42명의 학인 스님들의 장기기증등록을 받고 헌혈증도 4장 기증 받았다.

이번 운문사승가대 스님들의 캠페인 참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시’라는 것을 학인 스님들이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골수기증캠페인에 참여한 운문사승가대학 우경 스님(4학년)은 “백혈병 환자나 골수기증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됐다”며 “내 몸을 보시해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주상보시’ 실천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동참할 뜻을 전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중국 청따오에 설립된 한국사찰 금강선원이 개최한 수계법회에서 송광사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연비하고 있다.

“중국포교, 새 힘 얻었어요”

中 청따오 금강선원, 활안 스님 초청 수계법회

중국 청따오(靑島)에 설립된 한국사찰 금강선원(주지 법인)에서 교민과 현지인 등 70여명이 신도5계를 수계하고 불자의 삶을 다짐했다.

금강선원은 지난 7월 13일 송광사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을 초청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금강선원 창건 7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수계법회였다. 법회에는 한국에서 방문한 불자들과 현지 교민 등이 참석했다. 수계법회에서 활안스님은 “제1본성의 진리 자리를 드러내는 인간 참모습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법문 했다.

금강선원은 교리 공부와 참선 등의 수행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현지인들

에게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인스님이 7년 전 만해 길에 발심하여 창건원력을 세웠으며 구모선, 손덕숙, 한재순, 이용희 씨 등의 불자들이 스님의 불사를 도왔다. 종교행위가 엄격히 통제되는 현지의 여러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법도량을 일궈 온 법인 스님은 “수계법회를 봉행함으로써 이제 중국 포교에 대한 새로운 확신이 생겼다”며 “그간 불사를 함께 해 온 불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금강선원은 올 가을부터 교리공부와 경전강좌를 내용으로 하는 통산대학교 운영할 방침이다.

임연태 기자

경부고속철 범어사 구간 지하화 ‘확정’

본질 왜곡, 수용불가 범어사·환경단체

경부고속철도 범어사 교량구간을 지하터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실시계획변경안이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해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금정산 관동노선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관동반대 시민종교대책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건교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시가 범어사 구간 지하화를 확정하면서 이것이 마치 범어사와 환경단체의 요구를 전혀 수용한 것처럼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금정산과 천성산 관동을 강행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금정산 구간의 문제 핵심은 18km에 달하는 장대터널이 미치는 지하수 고갈과 계곡수 및 온천수 고갈, 산림생태계 훼손, 안정성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경단체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는 범어사 구간 지하화는 관동노선 강행을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범어사 구간 지하화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것과 관련 범어사는 “기본적인 입장은 지상이든 지하든 금정

산으로 지나가는 노선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금정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처분 신청에 대한 결심 공판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28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던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은 관련 자료 검토를 이유로 연기됐다.

천미희 기자

청주 보현사 지장전 낙성식

청주 보현사(주지 원봉)는 18평 규모 지장전을 건립하고 7월 23일 낙성식 및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원봉 스님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새로운 기도공간을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도도량이자 수행도량인 보현사는 1997년 보리수어린이집을 개원한데 이어 최근에는 장애아동전문시설인 보현어린이집을 여는 등 어린이 포교에도 앞장서 왔다.

한명우 기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마하부디 구미 보현의집’ 개소

구미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종합 지원센터 ‘마하부디 구미 보현의 집’이 7월 19일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구미 대문사 주지 진오 스님이 1999년부터 노숙인 점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던 구미 보현의 집을 확장 이전하면서 공식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 전문 지원센터를 열게 된 것이다.

구미 자선동으로 확장 이전한 보현의 집은 150평 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전용침터, 교육실, 식당, 인터넷 정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구미 보현의 집은 보다 안정된 시설을 바탕으로 정식 상담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구미 보현의 집은 새롭게 준비된 시설을 바탕으로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기존사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 전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매월 지역별 스리랑카 노동자 법회를 개최하고, 연 1회의 지역 연대법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대구 관오사와 양산 포교당에 보현의 집을 개원하는 등 지역별 거점 마련에도 매진하고 있다. 또 스리랑카 출신의 산프르시 스님과 소바나 스님을 초청해 상주하면서 외국인 불자들을 돕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국민 상호’ 불자 마케팅

회원제 운영, 저가 서비스 제공

장례서비스 업체인 ‘국민상조’ 대표 남광일이 새로운 형태의 회원제와 다양한 서비스로 불자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국민상조의 특징은 회원제 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특히 회원들은 상호이행보증보험에 자동 가입돼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회원의 경우 한 달에 2만원씩 99회(총 1

백98만원을 내게 되며, 1회 차 불입 이후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에는 320만원에 내야한다. 그러나 불자라는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원과 같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별우대한다. 국민상조는 불자들의 정서에 맞는 장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자상조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가입회원은 빈소와 음식, 장지만 준비하면 되며, 일체의 모든 절차와 준비물을 제공받게 된다. 대표전화 1544-4110

한명우 기자

부처님 말씀 ‘씩씩’

대구 은적사, 한문 학당 개설

“푸를 청(靑), 붉을 홍(紅), 검을 흑(黑), 흰 백(白), 누를 황(黃).”

7월 27일 대구 남구 대명동 불비나 유치원 법당에는 여름방학인데도 한자의 뜻과 음을 익히는 어린이들의 소리가 쩌렁쩌렁하다. 바로 대구 은적사(주지 허운)가 어린이 한문학당을 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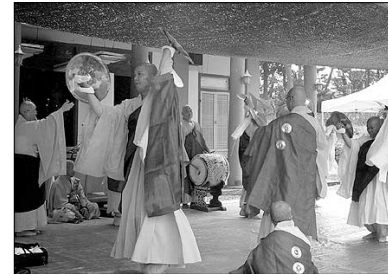
7월 24~30일 열린 한문학당에는 7세부터 초등학생 6학년생까지 대구 시내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모였다. 이미 정원을 모두 채웠는데도 매일 가입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인기다. 친구 동생 형 누나랑 앉은뱅이 책상을 앞에 놓고 은적사 총무 허주 스님을 따라 몸을 흔들어가며 음과 뜻을 말하는 어린이들도 마냥 신이 났다. 특히 스님의 갑작스런 돌발 퀴즈에는 정답을 먼저 말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스님을 가까이서 처음 보는 김범석(범불) 초 5년군은 매일 혼자서 학습지뿐만 한자를 익히다가 스님에게서 한자를 배우니까 더 재밌다.

허주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새롭게 전하기 위해 한문학당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053)653-1572

배지선 기자

호남 범음회 전통의식 강습



호남 범음회(회장 류암)는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김제 조양사에서 제3차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

호남 지역 사찰 스님 20여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그동안 발표되지 않은 신업공양, 명발 등 전통의식 강습이 펼쳐졌다.

범음회는 22일 회향에 앞서 조양사 법당 앞에서 사물, 작법, 천수바라 등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재연했다.(사진)

이준엽 기자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영산의식 비디오 시리즈

전통불교의식대학 학장이신 해공스님께서 불교의식 비디오를 아래와 같이 촬영 제작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필요한 의식비디오가 있으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 / 관육
2. 상주권공 지장 불공의식
3. 상용영반
4. 화청 ①②
5. 구병시식
6. 관음시식
7. 점안의식
8. 방생의식
9. 사물 다루는 법
10. 안택
11. 시다림
12. 산신불공
13. 미타불공
14. 신중불공
15. 관음불공
16. 지장불공
17. 삼대화상증명불공
18. 종사관육
19. 종사영반
20. 가사불사 이운식 ①②
21. 39위신중작법
22. 간단한 신중작법
23. 전통조석예불
24. 천수경 / 장엄염불
25. 상주권공, 각배, 영산염불
26. 사시상단예불
27. 작법무(복청계천수바라)
28. 작법무(사방찬소리도량계)
29. 작법무(옥건만다라선승다계)
30. 작법무(향수니얼 사다라니)
31. 교재 2권 80,000원

● 비디오 각 25,000원

제품구입처

- 전통불교의식대학 중무소 062)362-8604
- 해공스님 직통전화 011-624-8604
-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범음범패 하계교육대탕안내

1. 자격 : 스님 및 교인 포교사 일반불자 불교에 관심이 있는 자
2. 일자별 교육내용
 - 8월 29일: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목탁, 요령) 39위 신중작법 외
 - 8월 30일: 구병시식, 안택외 외
 - 8월 31일: 화청(회심곡), 종사관육 점안의식, 용왕불공, 방생의식 외
 - 9월 1일: 시다림(상가염불하는법), 바라춤 종사영반
 - 9월 2일: 요잡바라, 천수바라, 관음시식 외
3. 교육기간 :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 교육비 (교재비 별도)
 - 1) 200,000원정(숙박포함)
 - 2) 1일 수강시: 50,000원
5. 모집일시 : 8월 29일 오전 10시
6. 교육장소 : 본 대학 강의실
7. 준 비 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세면기
8. 문 의 처 : 전통불교의식대학 중무소 062) 362-8604 011-624-8604
9.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9-14
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노혜공

재약산 表忠寺 Well-Being 템플스테이

신라 진덕여왕 8년 원효대사께서 산문을 연 전통사찰인 재약산 표충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합니다. 정작불을 지피는 은돌방에서 그리고 음이음이 최고로 생성된다는 10여미터 높이의 폭포수 아래에서 스님과 함께하는 참선은 세파에 찌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 줄 것이며, 사명대사 승병훈려지었던 사자병의 6만평 갈대밭 담보로 몸을 수련하고 1100 고지의 12만평에 달하는 고산 늪지대를 탐방하여 고산 생태계를 체험하는 것은 참여 대중이 전통사찰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찾아 스스로 가꾸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참 나를 찾고 싶으신 분들에게 여가수련한 산과 계곡 그리고 산사의 싱그러움 햇살과 바람, 물소리를 모두 드립니다. 진정한 자아발견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 정 : 둘째, 넷째 주말 상시 진행(1박 2일) ● 첫째, 셋째 주말은 10명 이상 신청시 진행 ● 10명 이상 단체는 상시 진행 가능
2. 참가대상 : 일반, 청소년, 어린이 누구나
3. 참가비용 : 일반 3만원, 청소년 2만원, 어린이 1만원 (계좌번호 : 농협 811079-51-011960 예금주 표충사)
4.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모자, 등산화(운동화) * 수련복은 지급됩니다
5. 접수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http://pyochungsa.or.kr) 전화 ☎ 055)352-1070, 1150, 4115

일 정	시 간	내 용	일 정	시 간	내 용	
첫째날	15:00	접수 및 방사배정	셋째날	14:00	반야심경 강의	
	15:30	사찰안내 및 단체사진, 참배		15:00	산내 임자 순례	
	16:30	사찰예절 습의 (사찰내 행동지침)		16:30	17:30	지적공양 (발우공양)
	17:30	저녁공양 (후원)		18:30	저녁예불 (108배)	
	18:30	사찰예절 습의 (법당 예불)		19:00	참선, 자지회	
	19:00	저녁예불		20:00	취침	
	19:30	부처님 생애 발우공양 및 참선 습의		21:00	취침	
	20:00	취침		둘째날	03:00	기상, 새벽예불
	21:00	취침			04:00	108배(도반과 함께 절하기), 선체조, 참선, 포행
	03:00	기상, 새벽예불			06:00	이침공양 (발우공양)
04:00	108배, 참선, 선체조, 포행(탑돌이)	07:30	운력, 천수, 정리			
06:00	아침공양 (발우공양)	08:00	주지스님과 환담			
07:30	불무도 배우기	09:00	폭포아래 참선 및 사명대사 승병훈려지 담보(우천시 미도, 고사면 분교 옛터 명사 및 고산 습지대 체험(우천시 사당))			
08:00	약초 농장 체험	11:00	점심공양 (산에서의 주먹밥 공양 후 산행)			
09:00	간화선 강의 / 참선	12:00	점심공양 (발우공양)			
10:00	사시기도 동향 (108배)	13:00	스김은 작정 및 정리			
11:00	점심공양 (발우공양)	14:00	스김은 작정 및 정리			
12:00	점심공양 (발우공양)	15:00	회향식 (삼귀의, 반야심경)			
13:00	불무도 배우기					